일상생활에 응용하는 주기도

(마태복음 6:9~13)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중심으로 <일상생활에 응용하는 주기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일상생활에 응용하는 주기도'

십자가 복음방송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주기도 강해는 이미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일상생활에서 주기도를 통해 기도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생활을 계속 하다보면 주기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해지며 하나님을 더 많이 벌게 됩니다.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정상을 향해 올라가다가 50미터를 굴러 떨어지면 이번엔 53미터를 올라갑니다.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면서도 십자가를 붙잡고 주기도를 하면 조금씩이라도 정상에 가까워집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친해질수록 주기도에 대한 위치도 바뀌게 되므로, 고정된 시점으로 주기도에 대한 책을 저술한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과 저자의 친한 정도가 반영된 서술이 나올 수 있을 뿐, 주기도의 모든 내용을 확정지어 담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위치에 따라 주기도의 의미가 조금씩 바뀔 수 있기에, 오늘 말씀에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주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루어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주기도 외에는 모든 기도가 가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유일하게 참된 기도인 주기도를 통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골방 안에 들어가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에도 나가야 하고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며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주기도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또한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주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기가 막히는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 생활화에 대해서 강조해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기도로 기도하는 것 또한 생활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생활화와 일상생활에서의 주기도는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주기도의 모든 내용을 접어서 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주기도로 기도를 하는 것은 십자가를 펼쳐놓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것을 전제로 하고 주기도를 가르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주기도가 드려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의 기도만이 유일하게 참된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 전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전제가 있기에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에 이어지는 주기도의 내용이 성립합니다. '그러므로'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를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전제를 아는 것이 주기도를 이해하기 위한 결정적인 단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전제는 일단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좋아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드리는 어떤 기도나 말이나 행동일지라도 위선이고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한다면 마음에서도 하나님을 유일한 기쁨과 만족의 이유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반면 마음에서 기쁨과 만족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아닌 돈이나 건강 혹은 자녀의 형통 등을 담고 있다면 차라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편이 그나마 죄를 덜 짓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 전제는 우리의 삶은 25,000개의 부품이 조합되어 만들어진 명품 자동차와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모래보다 더 많은 보배로운 생각으로 나의 매일 매일을 빈틈없이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면 이방인의 삶과 다름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는 이방인과 똑같은 위치에 서게 됩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과 계획으로 빈틈없이 짜여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소원이나 계획은 한 조각도 끼워 넣을 틈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가진 생각대로 기도하고, 소원대로 기도하고, 계획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중언부언이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전제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위선적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이방인과 같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첫 번째 구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

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기도를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구절에서 '이름'이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20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고 하였습니다.

타락 전의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에덴에서의 삶은 이름을 짓고 이름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이 이름이 주기도에서의 '이름'의 의미와도 연관성을 가집니다.

우리도 이름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고 세상의 모든 물건들에 이름을 붙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부르며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타락 전과 후로 차이가 있습니다. 타락 전에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스스로 좋고 나쁨의 가치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 후의 인간은 이름을 짓고 부름을 통해 가치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배우자의 이름과 만난 적 없는 외국 대통령 이름은 전혀 무게감이 다릅니다. 이렇게 이름을 통해 가치를 판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당사자인 나의 마음에서부터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으로 번역된 원문을 살펴보면 '칼로 잘라내어 구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부르는 모든 이름들과는 다르게 칼로 잘라내듯이 구분되어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분의 방법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가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마음은 드리지 않는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은 어디까지나 돈이나 사업에 가있고 건강이나 장수 등에 가있습니다. 목사님이라면 온통 목회현장에 가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 위해서는 이 상황이 반대가 되면 됩니다. 이 세상의 사업이나 건강 혹은 목회현장 등에 마음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마음은 좋다고 여기는 대상들의 숫자만큼이나 관심이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을 조금 좋아하고, 사업은 조금 더 좋아하고, 건강도 조금 더 좋아하는 상태는 구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이것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마음으로는 다른 대상을 좋아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뒤집혀야만 합니다.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세상 것들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마음은 전혀 주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다 드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마음을 주지 않고 입으로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상태입니다.

타락 전에 아담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좋고 나쁨의 가치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이름을 짓고 부르는 일을 했기에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후에는 가치 판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어떤 특별한 과정을 통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구분되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세상 것들의 이름은 입으로만 부르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봄이 없이는 마음에는 세상 것들의 이름이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 덴마크라는 나라가 있고, 아프리카의 가봉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스웨덴 국왕의 이름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라이기에 특별히 가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도 가지 않습니다. 내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도 이런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국왕은 세간에서는 대단한 존재로 여겨집니다만 나의 마음에서는 배우자의 이름이 훨씬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상태가 아닙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 상황이 안 된다니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에게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에 대해 자녀에 대해 직장에 대해 사업 등에 대해 생각할 때에,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세상 모든 이름에 대해 죽었음을 떠올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먼저 떠올리고 다른 이름을 불러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름에서는 좋고 나쁨의 가치 판단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해 죽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없다면 입으로 부르는 이름이 마음에서도 크게 자리 잡게 됩니다. 성악가들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먼저 발성연습을 하듯이, 우리는 세상에 있는 대상들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내 마음을 쪼개서 배우자에게도 주고 자녀에게도 주고 직장에도 주

고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도 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전부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직장 문제를 떠올리려고 할 때에 먼저 십자가를 보세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손발에 대못이 박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상태에서 직장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려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우리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직장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좋아해서 만나기를 바란다면 먼저 마음을 하늘로 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못 박아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앞서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어려운 일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일에 끌려 다니며 마음 고생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삶은 훨씬 쉬워지고 가정이든 직장이든 참된 평강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놓치고 세상 것들의 이름을 마음에 담은 상태에서 평강은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충분히 경험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정리해봅니다. 우리는 세상 것들의 이름을 떠올리거나 부르기 전에 반드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것들과 다른 점은 내 마음의 전부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세상 것들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일부만을 드리려한다면 구분됨이 없어지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실 방법은 달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림으로써만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 구절이 주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제대로 된 방향이 결정되어야 이어지는 모든 구절들도 올바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삶이 버거워집니다. 배우자든 자녀든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끌려 다니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절대로 마음을 주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을 주지 않고 이름을 부르라고 하니 이 말이야말로 위선처럼 느껴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주지 않은 대상은 대체 어떻게 움직여 가게 된다는 것일까요? 이것이 주기도

의 두 번째 구절에서 나타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기도는 일종의 유언 기도에 가깝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였고 이로도 부족했는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말씀대로 해석하자면 항상 십자가를 짊어진 채로 세상 것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며 살아왔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마다 죽노라고 한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는지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를 대할 때에 십자가에서 마음을 죽이더라도 몸은 여전히 배우자를 만나야만 합니다. 이때에 마음이 남기는 유언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입니다. 이를 쉽게 풀이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 마음은 배우자를 떠나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 마음이 떠났으니 이제 내가 육체로 대하는 배우자와의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끼시는 장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유언이 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는 독립된 구절이 아닙니다. 앞서 나왔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와 연결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세상에 대해서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다는 것은 나의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고 판단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육신은 여전히 세상에 남아있기에 이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장갑삼아서 활동하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직장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과 마주해야 할 때에라도 먼저 십자가를 생각한 후에 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장님과 마주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유언이 적용됩니다. 이때에 내가 사장님에 대해 취해야 될 태도나 반응에 대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통치의 계획이 내려오십니다. 하늘에서 결정하신 뜻이 내 입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성취되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몸을 장갑삼아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연습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취업을 할 때에 면접장에 가서 해야 할 일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

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때에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설령 대통령과 마주하게 될지라도 그 자리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할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 가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 마음을 죽이며 하나님께 유언을 드림으로써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해 나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나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상태가 되도록 삶을 조정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본래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은 미루어지고 십자가를 붙잡는 자리까지 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유언을 남긴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왕이 되셔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나의 몸을 장갑으로 삼고 나타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로 하루 종일을 살아갈 때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될 것이고 남겨진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이 뜻대로 인도해나가실 것입니다. 이 기도가 안식으로 들어가는 유언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몰랐던 그동안의 삶은 너무나 바보 같았고 허황되었습니다.
이방인과 같은 마음으로는 이러한 유언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내가 스스로를 돌봐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래알같이 많은 보배로운 생각으로 내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기도하고 간구하여 마음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하실 것 아니냐며 마지못해 하나님께 굴복하는 삶은 불행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로우십니다. 이 보배로우신 생각이 내 삶 전체에 준비되어 있음을 믿을 때에 기꺼이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없는 내 삶의 부분은 없다고 믿으니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물샐틈없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삶 전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대할 때에조차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나를 죽이고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때에 남기는 유언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입니다. 내 마음이 떠난 삶의 현장을 하나님 아버지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가정 직장 학교 등을 비롯한 내가 활동해야 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관되게 해나갈 때에 삶은 낙원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주기도가

참으로 기가 막히는 기도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한 주기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로 기도를 하면서 사는 것이 곧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주님의 기도가 아니고서야 우리로써는 도저히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유언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펄펄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잘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호의를 베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상에 대한 유언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삶은 이미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들로 가득 차 있기에 덧댈 수 있는 나의 의견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의 의견을 주장하는 기도는 모두 이방인의 기도와 같은 중언부언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이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유언뿐입니다. 그렇기에 주기도에서 벗어난 다른 모든 기도가 가짜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해서 보람을 느낄지라도 내 생각에서 비롯된 일이라면 위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지고 계신 생각보다도 내가 더 보배로운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자유로운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주기도 하나 만으로 대박입니다.
큰 믿음을 갖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생활화를 통한 주기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베드로보다도 성경에 대해 더 박식합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의 믿음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안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하는 것은 십자가 생활화이고 주기도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십자가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펼치면 주기도이고 접으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주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였습니다.
이전 주기도문 강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도도 독립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체가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앞선 기도와 마찬가지로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주님의 기도가 단순히 음식을 구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33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주기도의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전 강해에서 이를 두고 "내게 들어온 재물의 지출 항목을 일용할 양식 외에는 정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놓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에 방해 받음이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마음만 살았다, 입만 살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몸만 살아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나의 생각도 죽고 판단도 죽고 소원도 죽고 계획도 죽어서 내 몸은 오직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제가 아픈 분들을 만나면 때로 음식을 못 드실 정도로 아픈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음식을 못 드시면 일주일도 견디지 못하시고 5일 이내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음식은 곧 생명을 위한 수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의 의미가 파악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몸으로 살아갑니다. 가정일도 해야 되고 직장에도 학교에도 가야합니다. 문제는 내 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 되고, 내 몸은 하나님의 장갑이 되어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첫째 조건은 몸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기도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삶을 위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목적으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승진과 연봉을 이야기하는 직장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의 형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나는 자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살기 위해서 몸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들은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부모로 만드신 것은 이러한 생

각을 가지고 살라고 하심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가는 이유는 자녀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내 마음을 다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정리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몸이 살아있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몸이 살아있어야 하는 이유는 앞서 보았던 두 구절의 기도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거울을 바라봅니다. 그 때마다 생각하세요. '이 몸이 살아있는 이유는 이 몸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이 유언 기도를 위해 삶의 현장으로 나가고 이 몸이 살아있는 것이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지니는 은총의 차원이 참 대단합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대역사를 일으키기 위해 준비한 것은 몸 하나 뿐이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렸을 뿐입니다. 몸이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동안 출애굽의 대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돈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궁중에서 배운 지식을 동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갔고 서라고 하면 섰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일이야 말로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린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2주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 빨리 들어가자고 독촉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의 지도자였으나 백성들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한 달이고 멈춰있으면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일은 모세에게만 허락된 기적이 아닙니다. 내 육체에 하나님의 뜻이 합쳐지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무슨 일을 못한다는 바보 같은 생각은 이제 버리세요. 못 배워서 무슨 일을 못 한다는 생각도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몸 하나면 됩니다. 돈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학력이 높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몸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안 이루어질 일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도 없고 집안도 좋지 않고 배운 것도 없어서 무슨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몸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을 두지 않은 몸 하나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몸에 붙어있으면 몸이 만나는 것들을 마음으로 열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몸을 따르게 되면 몸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진노의 자녀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주기도를 통해서 몸에서 마음을 떠나보내면 몸은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에 합당한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합쳐진 몸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생각해보면 이 기도가 정말 대단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싶으실 만큼 이 몸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꼭 모세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최선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것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애굽의 총리자리에까지 올라서 대기근으로 인해 죽어가는 근동의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조건은 살아있는 몸 하나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 준비한 것은 몸 하나였습니다. 로마를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한 것은 바울의 몸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것은 몸 하나였습니다.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 다 보내었던 몸들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평강과 기쁨이 없는 이유는 마음이 몸에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 없는 몸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몸으로 원하시는 뜻을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의 간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때까지 몸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살아있는 이유는 이것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 현장에서 유언 기도를 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떠난 몸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무슨 뜻이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통해 드러내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몸이 살아있는 동안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구하는 기도가 아님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쉽게 떠나보내는 유언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긍정적 차원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거나 또는 억울함이나 분함 때문입니다. 여기서 '죄'는 마태복음에서는 '오페이레마타(ὀφείλημα)'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를 사용합니다. 하마르티아는 '과녁을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오페이레마타는 경제용어로써 '부채'라는 뜻입니다. 부채가 손해를 의미하듯이, 과녁을 벗어났다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직역하자면 '우리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자(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삶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뉴스에서 맘에 들지 않는 정치인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에서 미움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도 없으며 뜻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몸이 살아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하는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훈계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녀에게 마음을 다 주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서 내 마음을 다 드리고 나면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고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나의 몫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몫으로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누가 내 돈을 100만 원을 떼어먹었다고 해도 애초에 그 100만 원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내 몫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발전하다보면 예수님이나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경우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조차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에 궁극적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유일한 몫으로 삼은 상태에서는 이 세상에서 어떤 손해도 입을 수가 없으며,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싫어할 이유도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누군가를 미워하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몫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당연히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에 싫다는 감정이 든다면 그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상이 자녀일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마음이 상한다면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남을 미워함으로 나타나기에 우리는 이를 통해 마음을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갔는지, 이 현장은 유언 간구를 하고 떠난 상태인지, 마음 없는 내 몸을 통해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가에 대해 점검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손해를 입었다고 슬퍼하고 있다면 앞에서 보았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도 앞선 기도와 연관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 억울함을 느끼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우리는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에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괴로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자 불평하고, 고기를 먹지 못하자 불평했던 것과 같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에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버렸다면 어땠을까요? 반드시 살아서 형들에게 원수를 갚겠노라고 결심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임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

들에게 팔렸을 때에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했을 때에도, 이런 운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 분해하고 억울해하는 대신 하나님을 자신의 몫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셉을 장갑삼아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들에 마음을 줄 때에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로 팔리는 것과 같은 시련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견디지 못한 채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회로 삼아 뜻을 이루어 가실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드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다윗은 죄 없이 10년을 쫓겨 다녔습니다. 그러나 다윗 또한 하나님을 자신의 몫으로 여겨 시험에 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그 뜻을 이루어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악은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전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되 마음으로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또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무시한 채 스스로의 생각을 중언부언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빠져나와야 할 악입니다.

오늘 살펴본 주기도를 통하여 죽여주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십자가를 붙잡고 주기도를 드림으로 그야말로 죽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